

《순자》

성리학에 가려진 순자의 참모습

글_표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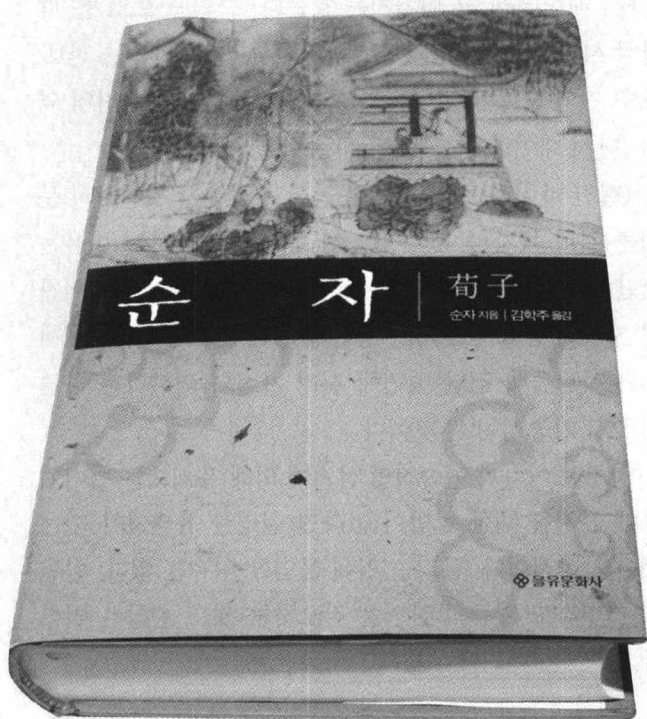
우리는 순자(荀子) 하면 성악설(性惡說), 그러니까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 악하다는 주장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주장으로 맹자(孟子)의 성선설(性善說)을 떠올리게 된다. 《순자》 제23편의 제목이 성악(性惡)인데, 그 첫머리에서 순자는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악이며, 사람의 선한 요소는 모두 후천적으로 노력하여 얻어진 것이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을 생각해 보면, 이익을 좋아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런 성질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서로 다투고 빼앗기만 할 뿐, 도무지 양보는 없게 된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성질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남을 다치게 할 뿐, 신의나 신뢰는 없게 된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를 보면 과연 그런 것도 같다. 한편으로는 순진무구하기 그지없어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 이익만 알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니 말이다. 설령 아기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한 우리 자신 역시, 각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가.

우리가 보통 순자라 부르는 순황(荀況: 순경(荀卿) 또는 손경(孫卿)으로도 불린다)은 중국이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서로 극심하게 다투던 전국(戰國) 시대(기원전 403-221) 말기에 태어나 활동한 사람이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출생 및 사망 연대만 해도, 기원전 4세기 초중반에서 3세기 중반 사이 정도라는 대략적인 연대만을 추정할 수 있다. 비록 정확한 생몰 연대를 확정하기는 힘들지만, 여하튼 그가 중국 역사상 가장 극심한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태어나 활동했다는 점만은 확실하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시대 배경을 통해 그의 이른바 성선설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인의와 예절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시대였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러했고, 개인과 개인 사이도 그러했다. 순자가 고민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순자가 내놓은 해결책은 바로, 사람들이 자신의 그릇된 성품과 행



순자 지음 | 김학주 옮김 | 을유문화사 | 866쪽 | 값 25,000원

● 이 글을 쓴 표정훈은

책을 읽고 쓰고 번역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출판평론가, 번역가, 작가 등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른 직함을 '번역·저술가'로 통폐합하는 중이며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매문기'로 규정한다. 저서로 《하룻밤에 읽는 삼국지》《하룻밤에 읽는 동양사상》《책은 나뉘는 운명을 지닌다》《탐서주의자의 책》《나의 천 년》이 있고, 역서로 중국의 '자유' 전통》《고대문명의 환경사》《진영첩의 주자강의》《자연, 그 경이로움에 대하여》《불사의 추구》 등이 있다.

동거지를 바로잡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람의 잘못된 품성을 바로 잡아야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갈등과 반목이 잦아들고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교육의 중요성을 무척 강조한다. 《순자》의 제1편이 바로 권학(勸學), 그러니까 ‘학문을 권한다’는 주제인데, 여기에서 학문이란 옛 성인이 제정하여 남긴 문물제도와 예법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자신의 품성을 열심히 갈고 닦는 그런 공부를 뜻한다. 순자는 사람들이 그런 학문에 전념하기를 마치 ‘쇠를 솥물에 갈듯’, ‘나무를 떡줄로 그은 직선에 맞추어 깎듯’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본다면 순자의 이른바 성선설이란 ‘잘못된 심성과 행동을 끊임없는 수양과 공부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은연중에 함축하고 있는 셈이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는 말은 어찌면, 사람들이 악하게 되지 않기를 무던히도 바라는 순자의 간절한 심정을 반영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우리는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본성을 잘 길러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람은 자신의 단점과 결함을 꾸준한 노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말도 그에 못지않게 자주 듣는다.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대략 맹자가 전자의 입장이라면 순자는 후자의 입장이라 하겠다. 맹자와 순자의 그러한 입장을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과 본성을 잘 기르면서 동시에, 단점과 결함을 극복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다. 요컨대 성선설과 성악설을 서로를 완전히 배격하는 상호모순적 입장이라기보다는 상호보완적 입장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성악설이라는 입장이 워낙 크게 부각된 탓에,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순자의 특징적인 입장이 또 하나 있다. 바로 그의 합리주의 사상이다. 유성, 일식, 월식 등의 천체의 특기한 변화, 홍수, 가뭄 등의 자연 재해를 신령스러운 현상으로 간주하여, 제사를 올리거나 굿을 하고 점을 치는 것이 순자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순자는 이에 반대하여, 그러한 현상이 어디까지나 자연 현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순자의 시대까지도 하늘(天)이 어떤 신비한 힘을 발휘하여 인간 사회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견해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순자》의 제17편 ‘천론’(天論)편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

극심한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갖 비합리적인 관행을 멀리하며, 다만 교육과 훈련을 통해 그러한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한 사람. 우리는 《순자》에서 그런 사람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순자》는 조선 시대를 통해 성리학자들이 백안시했고, 《순자》를 내놓고 읽거나 논하는 것이 금기가 되었다. 그 금기의 분위기관 대략 오늘날의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에 견줄 수 있지 않을까? ‘시험 볼 때 컨닝을 하고 안 하고는 너희들이 택할 문제다. 그러나 들리기만 해봐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성리학자들은 도통(道統) 관념, 즉 유교의 참된 가르침이 전해 내려온 정통적 전수의 계보를 매우 중시했다. 맹자, 한유, 이고, 정이 등이 유교의 정통적 전수 계보를 말했지만, 도통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이는 주희, 즉 주자였다. 주자는 복희·신농·황제·요·순·우·탕·문·무·주공·공자·안자·증자·자사·맹자·주돈이·정호/정이·주희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도통을 설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도통은 도통의 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각자 다음 사람에게 실제로 가르침을 전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맹자보다 1,000여 년 이상 후대의 인물인 주돈이나 정호, 정이가 맹자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전해 받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도통이란 실제의 역사적인 도의 전수 과정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후대의 유학자들, 특히 신유학자들이 재구성한 사상사적 의미의 전수 과정이다. 주희는 성리학이 유교의 역사 전체의 맥락 안에서 정통적인 가르침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이런 도통의 맥에 순자의 자리는 없다. 성리학자들이 보기에 순자의 가르침은 법가(法家) 사상에 기울어져 있다. 법가 사상이 한비(韓非)와 이사(李斯)가 순자의 제자들이라는 설까지 대두되었으니, 오늘날에도 순자를 유교의 예치와 덕치 사상에서 법가의 법치 사상으로 나아가는 일종의 전환기적·과도기적 사상가로 보는 견해가 있다. 사상사가 아닌 역사로 보자면, 전국 시대의 분열에서 진시황제의 천하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기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전환기의 막바지를 그린 드라마가 바로 장미여우 감독, 리리엔지, 장만위, 량차오웨이 열연의 영화 ‘영웅’이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의 승자와 사상사의 승자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순자와 맹자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